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Love is not just looking at each other, it's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생텍쥐페리 / Antoine de Saint-Exupéry

VOL.167
2021.04

Cover Story, '동료에서 연인으로' 김예지&정민수 부부
Game Focus, '2021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시즌 개막 업데이트!
Game Focus, '컴투스프로야구2021' 더욱 다채로워진 새 시즌 살펴보기
Special, 신규입사자를 위한 퀘스트북 런칭! '게임지 월드탈함'
Marketing Story,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서머너즈 워' & '사쿠라자카 46'
게임vs게임, '용과 같이' 시리즈로 보는 게임 진화론



2021 SEASON START!

GAMEVIL



MOBILE BASEBALL GAME SINCE 2002

게임빌

프로야구

2021 SEASON



SUMMONER'S
WAR
LOST CENTURIA

2021★04

Global Mobile Game Leader 'GAMEVIL-COM2US'

게임빌·컴투스 는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게임사입니다. 우수한 개발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 모바일게임 리더로 도약했습니다.

양사는 '손 안의 즐거움'을 모토로 모바일게임 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늬', '붕어빵타이콘', '게임빌프로야구', '미니게임천국' 등 엄지족들을 열광 시킨 히트 브랜드는 물론 '서머너즈 워', '별이되어라!', '컴투스프로야구',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 '낙시의 신', 'MLB 퍼펙트 이닝'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력 돋보이는 스테디셀러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는 세계인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게임문화를 조성해 '게임의 가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양사는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중국, 태국 등 10여 개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독자적인 모바일 통합 플랫폼 '하이브'에 기반한 방대한 유저 풀을 축적하여 게임으로 하나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게임빌·컴투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폰 안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게임 세상! 즐거운 게임 라이프를 출발합니다.

'GAMEVIL COM2US NEWS' 2021년 5월호에는 더욱 다양한 독자 분들의 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www.gamevilcom2us.com / gcnews](http://www.gamevilcom2us.com/gcnews)



CONTENTS



★ INSIDE GC

08 Cover Story

'동료에서 연인으로!' 김예지&정민수 부부

16 Special

신규입사자를 위한 퀘스트북 런칭!
'게임지 월드탐험'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22 Marketing Story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서머너즈 워' & '사쿠라자카 46'

30 Special

어떤 맛을 먹을까나~
'아르카나 텍틱스: 리볼버스' 대박 기원 이벤트



★ PEOPLE

24 나도혼자산다

갯성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득템하자
'맥시멀리스트의 삶' 2(타)편



★ GAME

12 Game Focus

'2021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시즌 개막 업데이트!

14 Game Focus

글로벌로 겨루는 실시간 전략대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 온다!

18 Game Focus

'컴투스프로야구2021'
더욱 다채로워진 새 시즌 살펴보기

27 게임 vs 게임

'용과 같이' 시리즈로 보는 게임 진화론



★ CULTURE

32 퇴근후에

책상 위의 전장
'밀리터리 모형의 세계'

36 맛세상

15분만에 완성하는
'붕글레 파스타' 레시피

38 Monthly Item

스위프트 포인트 트랙포인트 마우스

40 Special

교포가 전해주는 '브라질' 맛보기



★ FUN

35 게임백과사전

'로스트아크' 레이드 편

42 달콤한인생

사내공모전: 여행지 편

46 My Big Data

인생극장 '만약에 말이야'

48 복면검왕

49 WE WIT

55 Quiz

GC 상식 퀴즈

발행인 송병준
편집인 유연상
기획·편집 게임빌컴투스뉴스 편집부
디자인 박선영
표지 사진 고대은

기자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
게임빌컴투스뉴스 2021년 4월호 / 통권 제167호(Since 2001. 11.)
발행일 발행일 2021년 4월 1일 / 2001년 11월 창간호 발행(월간, 비매출)
발행처 게임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A동
정보간행물 신고 일자 2018. 7. 5. 신고 번호 금천, 라00216

동료에서 연인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팀 김예지 사우 & 데이세븐 정민수 사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글로벌라이제이션팀 김예지 사우와 데이세븐 정민수 사우 부부를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독자분들께 두 분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예지: 안녕하세요. 컴투스 글로벌라이제이션 1팀 스토리 파트에서 '워너비챌린지'와 '스토리픽' 로컬라이제이션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예지입니다.

정민수: 안녕하세요. 컴투스 자회사인 데이세븐 9년 차 클라이언트 개발자 정민수입니다. 데이세븐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고, 지금까지 출시한 앱은 200여 개나 되네요. 현재는 스토리픽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사보 표지 모델을 하시기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예지: 지난해 10월과 11월 호에 사보 자원기자로 활동하며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남편과 좋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두 분의 만남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불꽃 같은 연애를 하시고 곧바로 결혼하셨다고요.

정민수: 처음엔 서로 관심도 없었어요. 우연히 같이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너무 잘 통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혼자 있을 때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예지: 해외 생활을 오래 하며 떠돌던 저를 맞이 되어 한곳에 머물게 해준

사람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 자기도 고통받는 듯 너무 서럽고 애뜻한 얼굴로 저를 정성스럽게 간호해 줬을 때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겠구나'하고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4 민수님은 데이세븐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인가요?

정민수: 대학교 졸업 후 구직 중일 때 면접을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 다. 당시 데이세븐은 소개팅 앱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게임 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거절할까 하다가, 경험 삼아 가보자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며 소개팅 앱 외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앱들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입사를 결정했고 지금까지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데이세븐에 대해 살짝 자랑하자면, 미연시 게임 회사에 걸맞게 인테리어가 아름답고, 창 밖에 한강과 여의도 뷰가 멋져서 언제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쾌적한 근무 환경과 수평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5 말을 꺼낸 김예지 데이세븐의 '스토리픽'은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어필해주세요.

정민수: '스토리픽'은 데이세븐이 개발한 스토리게임 플랫폼인데요. 웹툰이나 소설, 아니면 영화처럼 결말이 이미 정해진 스토리가 아닌 나의 선택에 따라 전개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력적입니다. '늑대의 유혹', '하트시그널', '일진에게 빠졌을 때' 같은 강력한 IP의 스토리를 하나의 앱에서 모두 볼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6 예지님은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신가요?

김예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캐나다에 이민을 갔어요. 그 이후엔 공부와 직장 때문에 혼자 네덜란드, 스웨덴, 스코틀랜드에서 지냈습니다. 그중 스웨덴 남쪽에 위치한 도시 말뫼가 제일 좋았는데, 한적한 해변의 탁 트인 푸른 풍경이 너무나도 멋있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로 15분만 가면 바로 코펜하겐이라서 투어 하기도 좋아요. 스웨덴에 여행 가는 사우분 계시면 메시지 주세요. 제가 자주 갔던 맛집 리스트 드릴게요!

7 들고 나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행도 좋아하지만 힐링도 좋아하신다고요.

김예지: 바깥스를 온 것처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안마의자에 앉아 릴렉싱 캔들의 향을 맡는 걸 좋아해요.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기분일까요. 재미있는 게임이 나오면 한 명은 안마의자, 또 한 명은 요가 매트에 누워서 온종일 게임을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8 2021년 혹은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정민수: 코로나로 운동을 게을리하고 집에만 많이 있었더니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체중감량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예지: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때를 위해 여행자금을 넉넉히 모으고 싶습니다!

9 부부로 같은 회사나 유관 회사에 다니면 어떤 점이 특히 좋을까요? 사우분들에게 적극 추천인가요?

업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든든한 심리적 서포터를 둔 기분이예요. 또한 게임이 업무이고 게임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각자의 게임 시간을 존중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온종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점입니다. 인연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내연애 적극 추천합니다!

10 사우분들을 비롯한 독자분들께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예지: 먼저 촬영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사보 관련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긴급 업무 요청으로 고생하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팀원분들, 그리고 저희 스토리 파트에 계신 다섯 명의 파트원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민수: 언제나 좋은 스토리 게임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에서 저희 사우분들, 그리고 독자분들 몸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양우용 기자 / tutlee@





드디어 대망의 겐프야 2021 시즌이 개막한다!

'2021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시즌 개막 업데이트

'게임빌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가 시즌 업데이트를 통해 정식 게임명을 '2021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이하 겐프야)'로 업데이트하고 게임 콘텐츠에도 큰 변화를 줬다. 특히 '겐프야' 12년 역사 최초로 글로벌 통합 실시간 대전 콘텐츠를 출시하여 유저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재미를 더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겐프야'의 모습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야구 게임의 백미 <실시간 대전>

'겐프야'를 즐기는 수많은 구단주들은 '겐프야'가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리그로 끝난다. 이제 실시간 대전이 추가되어 함께 겐프야를 즐기는 다른 구단주를 상대로 더욱 박진감 넘치는 PvP 대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실시간 대전 콘텐츠는 '연습 경기'와 경쟁 목적의 '해피 워크엔드'로 구성되어 있다.

◎ 연습 경기

친구 또는 다른 유저들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모드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박진감 넘친다.

◎ 해피 워크엔드

해피 워크엔드는 주말마다 개최되는 글로벌 통합 대회로 모든 구단주가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경기 결과에 따라서 랭킹 포인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랭킹 포인트에 따라 티어가 결정된다.



보상 종류	보상 내용
참여 보상	대회 기간 동안 참여 경기 조건 달성 시 지급되는 보상
경기 보상	경기 참여에 따른 보상 (경기 결과 / 티어에 따라 보상 수준 변경)
등급 보상	대회 종료 시 참가 중인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팀 순위 보상	대회 종료 시 팀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이 외에도 대회 기간 중 승/무/패 경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뿐만 아니라 대회 종료 시 등급 보상과 팀 순위 보상, 팀 훈련/탈삼진 등의 선수 기록에 따른 랭킹 보상 등 다양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경기에 참여만 해도 참여보상이 지급되니 일단 참가해 보자.

'겐프야'의 핵심 콘텐츠 <나만의 선수> 육성 시스템 리뉴얼

'겐프야'는 나만의 선수 육성 시스템도 크게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 대폭 업그레이드된 육성 완료 보상

<나만의 선수> 육성 시스템의 첫 번째 큰 변화는 나만의 선수 육성 완료 시 보상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획득량 보다 더 많은 성장 메모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유전자 및 영입권 등 다양한 보상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다.

◎ 트레이너 데크 추천시 '스킬 우선' 기능 추가

두 번째로 트레이너 데크 추천 구성에 '스킬 우선' 기능이 추가됐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구단주들이 트레이너 데크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킬 우선' 기능을 통해 선택한 포지션에서 높은 레벨의 일반 스킬을 편리하게 설정하여 육성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선수 능력치 <서포트 스킬> 추가

나만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과 함께 선수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서포트 스킬이 새롭게 추가됐다. 서포트 스킬은 슈퍼 스킬과 함께 선수를 성장시키는 스킬로, 슈퍼 스킬의 상시 효과와 동일하게 경기 내에서 선수에게 적용되는 추가 능력치이다.

◎ 서포트 스킬 획득 방법

서포트 스킬은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너와의 호감도를 100까지 달성하고 해당 트레이너를 배치하여 훈련하면 획득할 수 있다. 선수는 최대 6개의 서포트 스킬을 얻을 수 있다.

◎ 서포트 스킬 활성화 및 강화 방법

서포트 스킬은 스킬 캡슐, 서포트 스톤, 골드를 소모하여 활성화할 수 있으며, 서포트 스톤과 골드를 사용하여 강화할 수 있다.

업데이트 기념 <대규모 보상 이벤트>

시즌 개막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겐프야'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데이트 기념으로 게임 접속 시 킨타이거 트레이너와 코스튬, 220개의 뽑기권 등 대량의 재화를 지원한다. 또한, 많은 구단주들이 원하고 원했던 일일 출석부와 신규 출석부 보상이 대폭 개편되는 등 게임에 접속만 해도 다양한 이벤트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이 '겐프야'를 시작할 적기가 아닐까?

글. 정다영 기자 / dy.jung@



★ 실시간대전_메인로비



★ 해피워크엔드_로비



★ 육성시스템



★ 육성시스템_스킬우선



★ 서포트 스킬



★ 서포트 스킬_트레이너관리



글로벌 유저와 실시간으로 겨루는 전략대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 온다!

컴투스사의 새로운 신작,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하 백년전쟁)'이 곧 출시한다. 글로벌 유저들이 CBT에서도 많은 관심과 호평을 보여준 바 있는 '백년전쟁'. 출시 전 사전예약에 전 세계 유저가 몰리며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글로벌 사전 예약자 500만 명 돌파

'백년전쟁'의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유저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본격적인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한 수치라 이런 추세라면 천만 유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는 '백년전쟁' 공식 홈페이지에 다양한 게임 정보와 이벤트를 추가해 출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 '백년전쟁'의 핵심 재미

'백년전쟁'은 서머너즈 워의 강력한 IP 파워에 특유의 전략성을 살린 빠른 템포의 실시간 전투 게임이다. '서머너즈 워' 세계관 속 다양한 몬스터를 소환·육성해 자신만의 팀을 만들고 전 세계 유저들과 전투를 펼친다. 카운터 시스템, 소환사 스펠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토대로, 반격과 역전이 펼쳐지는 화끈한 한판 전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카운터는 상대방의 공격 턴 중에도 자신의 스킬을 발동시켜 즉각적인 반격을 하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실제 전투와 같은 치열한 반격과 역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소환사 스펠은 몬스터가 아닌 유저가 직접 전투에 개입해 쓸 수 있는 강력한 스킬 콘텐츠로, 단번에 전황을 뒤엎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 진행한 글로벌 테스트에서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전이 펼쳐진다는 장점에 큰 호평을 받았다. CBT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의견과 데이터를 토대로 막바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정식 출시 시점에는 진입장벽은 낮추고 전투의 재미는 한 층 높여 전 세계 유저를 모두 만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식 런칭 버전에서는 '플레이의 재미'를 넘어 '보는 재미'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 다른 유저들의 전투를 보고 전략이나 덱 구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응원하기' 시스템이 추가돼, 전투를 펼치는 특정 플레이어를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e스포츠의 재미까지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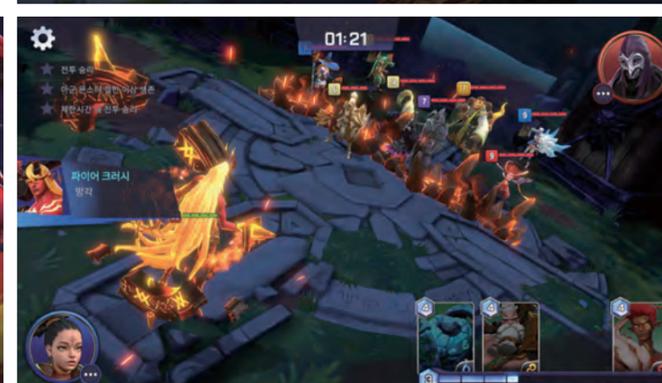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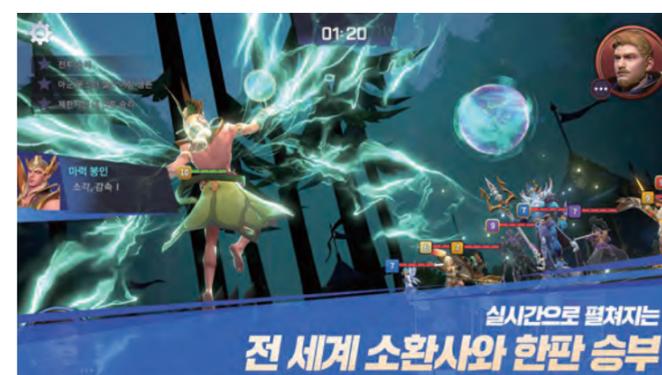
★ BI 및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

최근 컴투스는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 버전의 리뉴얼 BI와 전면 개편된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준비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리뉴얼 BI는 타이틀의 가독성을 높이면서 게임의 박진감을 표현하는 강렬한 서체로 꾸며졌다. 개편된 공식 홈페이지는 새로운 BI와 세계관 속 몬스터들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과 구성으로 심미성과 직관성을 모두 높였다. 또한 '백년전쟁'을 기다리는 유저들을 위해 게임 콘텐츠 및 몬스터 소개가 추가됐으며, 사전 예약자 수 달성 미션, 공식 카페 가입 및 카카오톡 채널 구독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한 보상 획득의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와 사전 예약 참여는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통해 가능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

글. 오용진 기자 / yongjin@



게컴지 월드탐험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규입사자-기존구성원 소통 확대 위한 #사내소통 프로젝트 #웰컴 #게컴지 월드탐험

• GUIDE MAP •



신규 입사자 대상 '버디 프로그램'이 '게컴지 월드탐험'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짝짝)
'게컴지 월드탐험'은 새롭게 게임빌-컴투스 월드에 적응하기 위한 30일간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멘토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악당을 물... 아니, 재미있는 퀘스트를 클리어하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30일간의 게컴지 월드탐험

신규 입사자들은 멘토와 함께 게임빌-컴투스 월드에 적응하기 위한 30일간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멘토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악당을 물... 아니, 재미있는 퀘스트를 클리어하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게컴지 어드벤처 소개

STEP 1. Warm-up

신규입사자를 위한 팀원들의 웰컴레터 작성하기.



STEP 2. 공통

신규입사자가 게임빌-컴투스 월드에 성공적으로 정착&적응하기 위해 '회의실 예약하기' 등 필수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퀘스트!

#팀원들과 인사하기 #게컴지 공간투어 #회의실 예약하기 #사보 독자코너 참여하기 등
Tip. 퀘스트를 깨다 보면 선물교환처도 만납니다!!!

STEP 3. 레벨업

신규입사자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멘토, 조직장과 함께 충분한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퀘스트!



인싸 인증 퀘스트

"인싸되기 가장 쉬웠어요."



STEP 4. 관계: 게컴지 월드 내 인싸되기

#커피쿠폰 #점심식사비(5만원/1회) 지원!!!!



STEP 5. 성장: 게컴지 내 나의 성장계획 세우기!

#게컴지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LAST

★★★ 퀘스트가 끝나면? ★★★

퀘스트 모두를 수행한 멘토&멘티 페어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게컴지 월드탐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소통 Tok>과 1층 Connecting 라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참여는 '신규입사자X멘토' 한정)





국내 대표 리얼리티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2021'

더욱 다채로워진 새시즌 살펴보기

KBO 정규 리그 시즌이 다가오며 개막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야구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컴투스프로야구2021'(이하 '컴프야')의 특별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다. 올해의 새로운 '컴프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자.

★ 진정한 실력 승부, 예측불허 실시간 대전

이번 시즌엔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실시간 대전 모드가 추가될 예정이다. 실시간 대전은 '친구 초대'를 통해 매칭 후 대결을 진행할 수 있고, 3이닝 플레이로 연출 시간을 최소화하여 간편하고 빠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한 AI와 대결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기에서는 순간의 판단력과 센스가 더욱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낸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짜릿한 손맛이 게임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대결 중에는 이모티콘을 통해 감정 표현도 가능하다. 이모티콘은 유저들에게도 친숙한 GM수여니 캐릭터의 모습을 빌려 다양한 감정들을 귀엽게 표현했다. 경기 중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더욱 흥미진진하고 생동감 있게 즐겨보자.

풍성한 보상이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 실시간 대전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실시간 대전 플레이 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아프리카 B1리그도 열릴 예정이니 다양한 즐길 거리와 함께 친구들과 실시간 대전을 플레이해보자.

★ KBO 신인왕 4인방, 공식모델 발탁!

작년 '바람의 부자' 콘셉트의 '이정후, 이종범'에 이어, 올해부터는 신인왕 콘셉트의 '이정후, 정우영, 강백호, 소형준'이 '컴프야' 공식 모델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 소속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2017~2020년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한 한국 프로야구의 기대주들이다.

먼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신인왕을 거머쥔 이정후와 강백호는 각 소속팀의 차세대 프렌차이즈 스타로 불리우는 것은 물론 기량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신인 투수로서 두자리 승수를 쌓으며 소속팀 KT의 창단 첫 가을야구 진출을 이끈 소형준과, 안정적인 투구로 LG트윈스의 허리를 책임지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견인한 정우영 역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패기 넘치고 젊은 에너지의 신인왕들은 이번 시즌에 업데이트되는 친구들과 즐기는 실시간 대전 콘텐츠와도 어울려 '컴프야'에 한층 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들 4인방의 모습은 게임 타이틀 이미지, 앱 아이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더욱 풍부하고 생생해진 현장감

'컴프야'는 매주 KBO 리그 선수들의 성적을 분석해 게임 내 적용하는 라이브(LIVE) 시스템을 통해 실제 야구의 생생함을 게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올해도 신규 시즌에 맞춰 2021 시즌 KBO 스케줄을 완벽 반영하고 Live 선수 카드 추가해 한층 강화된 리얼리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용철, 강성철' 해설에서 '장성호, 강성철' 해설로 변경하고 강성철 캐스터 멘트도 보강하여 더욱 실감 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현실 야구와 함께 즐기자

'컴프야'는 2021 KBO 리그를 맞이하여 실제 경기와 연동되는 승부예측 이벤트와 판타지 라인업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

승부 예측은 실제 진행되는 KBO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보는 이벤트다. 예측 결과나 참여 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누적 100회 참여할 경우,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등급상승권'을 획득할 수 있다.

판타지 라인업은 유저가 평소 응원하는 선수들로 가상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해당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서 활약하는 만큼 포인트를 얻어 다양한 게임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실 KBO 경기와 함께 즐기며 다양한 보상을 얻어보자.

★ 매해 새롭게 발전하는 '컴프야'

'컴프야'는 오랜 시간 서비스하며 쌓은 노하우로 안정감 있게 높은 퀄리티의 야구 경험을 선사하면서도,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고 신선한 재미도 놓치지 않아 국내 야구 게임의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기존의 '컴프야'를 뛰어넘어 더욱 리얼해지고 흥미진진한 야구 게임의 모미를 선사해 줄 '컴프야'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그럼 올해도 '컴프야'가 준비한 신규 콘텐츠와 함께 다채로운 야구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라며 새시즌 소개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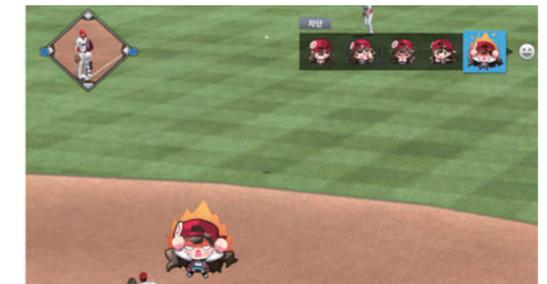
글: 박민지 기자 / pmi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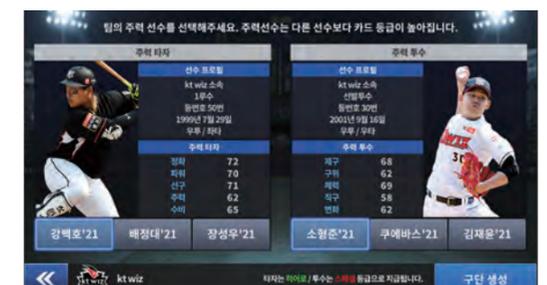
★ 실시간대전 로비



★ 실시간대전 인게임 플레이 화면



★ 실시간대전 이모티콘 표시



★ 주력선수 선택 화면



★ 2021년 'KBO' 리그 스케줄



컴투스프로야구
2021

MLB PLAYERS
TM/© 2021 MLB
OFFICIALLY LICENSED PRODUCT - MLB PLAYERS, INC.



MLB 9인닝스 21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세계 2위 게임 시장에서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서머너즈 워' & '사쿠라자카 46'

2021년, 컴투스의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가 출시된 지 7주년이 됐다. 수많은 게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세계 모바일 게임업계에서 7년 동안 서비스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인데, '서머너즈 워'는 지금도 북미와 유럽에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세계 모바일 게임의 명작이다. 더욱이 7주년 '서머너즈 워'에게는 앞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땅이 무한히 남아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지금까지 보다 더 폭넓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세계 2위 모바일 게임 시장이다. 그래서 2021년, 일본 시장에서의 또 한 번 약진을 위한 대규모 마케팅을 시도했다. 일본 현지 아이돌인 '사쿠라자카 46'을 홍보 모델로 섭외한 것.

NEW 홍보전략: 일본의 성장형 아이돌을 통한 마케팅

'서머너즈 워'는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본 현지 아이돌을 홍보대사로 세우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일본의 "성장형 아이돌"과 '서머너즈 워'의 "육성을 중시하는 수집형" 시스템의 공통점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 아이돌은 한국 아이돌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한국 아이돌은 수 년 간 강도 높은 연습생 생활을 통해 나온 "완성형 아이돌"이다. 반면 일본 아이돌은 짧은 연습 기간만에 데뷔하여, 무대에서 점차 발전하는 "성장형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향유하는 소비자의 심리 또한 다르다. 한국 팬덤은 아이돌이 데뷔부터 뛰어난 음악성과 안무의 "퍼포먼스" 실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반면 일본 팬덤은 퍼포먼스 실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풋풋함(?)을 중시한다. 나의 최애 아이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며 아빠 미소를 짓는다고 보면 되겠다.

즉 "무엇"을 뽑느냐 외에도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

이런 일본 아이돌 팬덤의 심리는 '서머너즈 워'의 유저와 비슷하다. '서머너즈 워'의 가장 큰 특징은 "태생 등급"이 비교적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타 일본 수집형 게임들은 태생 6성, 태생 5성 등 고티어 캐릭터들이 메타를 꽉 쥐고 있어 어떻게든 이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서머너즈 워는 저티어 캐릭터도 적극적으로 쓰인다. 플레이를 하며 쌓은 자원으로 이들 캐릭터를 고티어로 승급시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승급한 캐릭터가 태생부터 고티어인 캐릭터들보다 더 뛰어나기도 하다. 즉 "무엇"을 뽑느냐 외에도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저티어 캐릭터들은 게임 초반부터 유저에게 지급되어 일찍부터 애정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일본 아이돌 팬덤의 심리와 매우 유사하여 이들을 '서머너즈 워'의 코어 유저로 포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아이돌을 홍보대사로 선정한 '서머너즈 워'의 마케팅 전략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다.

앞으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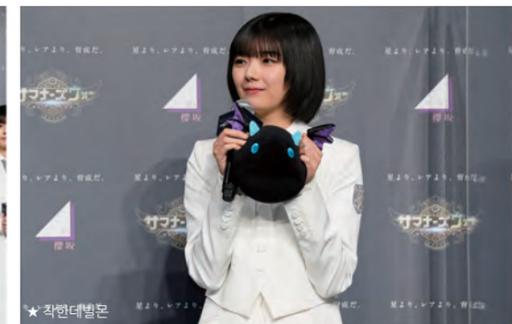
2월 25일, '사쿠라자카 46'을 '서머너즈 워'의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대규모 발표회가 열렸다. 코로나 시국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그 모습은 일본 내 주요 방송국을 포함한 현지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쿠라자카 46'은 앞으로 <별 보다, 레어보다,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디어 캠페인을 펼친다. 8명의 멤버가 각각 8종의 웹 무비를 제작하여 7주년 캠페인 기간에 방영하고, 멤버들이 학교 강의처럼 강사/학생으로 출연하는 튜토리얼 콘텐츠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콜라보 굿즈도 제작하는 등 '서머너즈 워' 7주년을 맞아 다양한 즐거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본 아이돌 중 왜 '사쿠라자카 46'일까?

'사쿠라자카 46'은 기성 아이돌인 '케야키자카 46'이 개명한 그룹이다. 그리고 '케야키자카 46'은 2010년대에 'AKB 47'과 함께 일본 아이돌계를 양분했던 '노기자카 46'의 자매그룹이다. 덕분에 '케야키자카 46' 역시 2015년 데뷔와 함께 큰 기대와 주목을 받아 신인 중 가장 빠르게 앨범 판매량 70만 장을 기록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그룹명을 '사쿠라자카 46'으로 개명하고 재반등을 시작했다. 다시 한번 2015년 데뷔 그 순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2015년 세계 두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인 일본에서 10위 권을 달성했던 '서머너즈 워'처럼 말이다.



나가며...

해외시장을 공략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이러니까, 일본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라는 선입견에 한 번 사로잡히면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기성 아이돌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서머너즈 워'도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맥시멀리스트의 삶 2(타)편



갓성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득템하자.

지난 호에서는 기자의 타고난 '운명'인 맥시멀리즘을 솔직하게 입증하고, 맥시멀리스트의 장점들을 소개한 바 있다. 맥시멀리스트는 도라에몽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심지어 창고 어딘가에 있을 구명조끼를 생각하며 일어나지 않은 추억까지 느낄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번 호에는 토끼가 좋아하는 '그 마켓'. 여러분이 바로 떠올리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기자가 실제로 체험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한다.

★ 중고거래의 신홍 강자 '당근마켓'

중고장터의 전통적 강호인 중고나라와 함께 최근에는 번개장터, 당근마켓과 같은 신홍 중고 플랫폼이 대세다. 그중 기자는 동네+직거래를 기반으로 한 당근마켓 마니아인데, 신용도와 친절도를 거래 온도로 표시하여 보기 쉽게 되어있다는 점이 아주 좋다. 무료 나눔도 활성화되어 있어 아나바다를 실천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본다.

게다가 중고 마켓 인기 물품이라면 먼저 연락한 사람이 나중에 연락한 '웃돈러'에게 물건을 뺏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당근마켓은 '예약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채팅을 걸 수 없게 되어있어 이 바닥(?)의 상도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

당근마켓의 '나의 동네'는 두 곳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 이 플랫폼을 이용해본 독자라면 기자처럼 회사와 집 두 곳을 등록해 두었을 것이다.

미세 팁을 드리자면, 원하는 물품이 생겼을 때 '키워드 알림' 기능을 통해 시세와 물품 등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 좋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가격에 물건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물건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 기자가 구매한 갓성비 제품들

기자는 사실 쇼핑도 좋아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싸게 사거나, 집 앞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다. 썩스럽지만 실제로 중고거래로 구매한 일부 품목을 소개한다.



화면이 안되는 사이클 운동기구

- ▶ 가격: 0원.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버린 걸 주워 왔다. 계단으로 공공거리며 올라왔다)
- ▶ 의도한 용도: 화면이 안되어도 사이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클 운동을 할 때 쓰려고 했다.
- ▶ 실제 용도: 빨래걸이. 바가 네 개라 한 번에 빨래 네 개를 말릴 수 있다.
- ▶ 갓성비 별점: ★★★



에어 프라이어

- ▶ 가격: 5,000원
- ▶ 사용 후기: 세상에! 나의 생은 에어 프라이어가 없었던 시절과 그 후로 나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복덩이를 단돈 5천 원에 구입하다니. 중고거래 인생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한다.
- ▶ 갓성비 별점: ★★★★★



미니벨로 자전거

- ▶ 가격: 80,000원 (당근마켓)
- ▶ 사용 후기: 어머니가 작고 튼튼한 자전거를 원하셔서 거의 미사용인 깨끗한 자전거를 구매했다. 처음엔 약간 비싸게 산 것 같았지만 참 예뻐서 만족 중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퀴 안쪽부터 터져 있어서 수리비가 3만 원 더 나왔다. 이런.
- ▶ 갓성비 별점: ★★



하이브리드 자전거

- ▶ 가격: 10,000원 (당근마켓)
- ▶ 사용 후기: 도무지 당근마켓의 시세는 알 수가 없다. 이게 1만 원이라고! 이 친구도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1만 원 정도 들었지만,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한다. 한강 라이딩 하기에는 최고.
- ▶ 갓성비 별점: ★★★★★

★ 맥시멀리스트도 '나눔'의 미덕을 안다

갓성비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맥시멀리스트의 패시브 스킬이지만, 기자가 보기엔 무조건 집에 쟁여만 두는 것도 맥시멀리스트는 아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필요한 상황에 '짠~!'하고 도움이 될 줄 아는 미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맥시멀리스트의 자세다.

기자 역시 한때는 집에 쌓아 놓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거래 온도(신뢰도)를 높이려고 나눔을 해본 것이 은근히 재미가 있어, 요즘에는 쌓이는 물건을 무리나 저렴하게 내놓기도 한다. 이웃들에게 싸게 사는 만큼 나도 소소하게 나눔을 하다 보면 뿌듯함에 미소가 지어진다.

진정한 맥시멀리스트, 더 훌륭한 맥시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기자는 오늘도 알림을 설정한다. 여러분 모두 득템하시길!



WANNABE
CHALLENGE



‘용과 같이’ 시리즈로 보는 게임 진화론

용과 같이 0
VS
용과 같이 7

‘오븐’을 뒤흔쳐나온 쿠키들이 급기야 ‘왕국’을 건설하며 IP의 진화를 증명했다. 춘향가, 심청가 같은 판소리 콘텐츠도 민중의 이야기로 살이 붙어 진화했듯, 오늘날 게임업계의 IP도 이야기, 캐릭터, 시스템을 적층해 또 다른 깊이를 만들어낸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문화의 본질적 특성이다.

‘세가’의 액션 어드벤처 ‘용과 같이’(원제:龍が如く)는 2005년 발매 이후, 올해로 16년을 맞았다. 61년 업력의 세가에서도 이 시리즈는 ‘소닉’과 더불어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로 꼽힌다. 8편의 본편, 2편의 리메이크, 7편의 외전 등 총 17편의 시리즈 누계 판매량은 1400만 장에 달한다.

기자의 뇌피셜에 따르면, ‘용과 같이’ IP는 2015년 10주년 기념 타이틀 ‘용과 같이 0’ (이하 ‘제로’)와 2020년 시리즈 15주년을 맞아 내놓은 ‘용과 같이 7’(이하 ‘7편’)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 두 작품을 통해 게임 IP의 진화를 논해본다.



★ 용과 같이 0 ★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야쿠자 소재 누아르다.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영화 '우간도'나 '신세계'를 콘솔용 RPG로 제작했다고 보면 된다. '제로'는 본편 1~6편의 프리퀄이다. 시리즈 주인공인 '키류 카즈마'를 메인, 인기 캐릭터인 '마지마 고로'를 서브 캐릭터로 내세워 양쪽을 번갈아 가며 스토리를 전개한다.



흥미로운 시대적 배경

'제로'의 시대는 1988년. 세계 경제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삼저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일본은 산업 발전과 엔화 가치 상승으로 버블 경제의 절정을 맞는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던 시대. 게임은 유저를 신주쿠 카부키초를 모델로 한 '카무로초'와 오사카 도톤보리를 배경으로 한 '소넨보리'로 안내한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몸을 감싸는 거리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 화려한 복장의 성인 남녀, 각종 유흥시설이 즐비하다.



일본 버블 절정 시대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

주인공, '키류'는 살인 누명을 쓰고 몸담고 있던 조직 '동성회'에서 파문당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은 부동산업자 '타치바나'. 그는 키류가 누명을 벗고, 아버지처럼 따르던 선배 '카자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재개발의 핵심이 될 '한 평의 공터'를 찾아올 것. 정말 그것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불신하는 키류에게 타치바나는 마법을 보여준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카무로초 거리를 손으로

가리키자 차례로 도시 전체가 잠전된다. 동성회의 또 다른 조직원 '마지마 고로'는 모종의 이유로 조직의 핵심에서 좌천되고 한 사람을 살해하라는 협박 지령을 받는다. 칼을 들고 그자가 일한다는 안마 시술사로 쳐들어 갔으나, 막상 질러야 할 대상은 눈이 보이지 않는 여자, 게다가 그녀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고로는 조직의 눈을 피해 그녀를 숨기기로 결심한다.

두 주인공은 이 세계의 부조리와 음모 뒤 켜에 바로 그 '수수께끼의 여인'과 '한 평의 공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호황의 그늘에서 부동산 개발 이권에 개입한 두 개의 야쿠자 조직과, 정부와, 날 것 같은 사내들의 피비린내 나는 서사가 펼쳐진다.

탄탄한 스토리에 버무려진 시원시원한 액션

제로는 이전에 나온 본편의 게임성을 집대성했다.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 세미 오픈월드 스타일로 맵을 돌아다니다가 적을 만나면 액션 커맨드를 입력하며 신나게 때려 부수는 액션 배틀은 당시 기준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특히 캐릭터당 4가지 격투 스타일을 습득하고,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어 격투 게임으로서 깊이를 더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은 스토리와 궁합이 좋다. 격투 기술 해금도 돈, 아이템도 돈, 적을 무찔러도 돈이다. 게임만이 가능한 과장 섞인 표현으로 당시 일본의 물신주의적 풍조를 유쾌하게 드러낸다. 또한 미니게임으로 등장한 '부동산 매매'와 '클럽 운영'도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재미를 더한다



★ 용과 같이 7 ★

'제로' 이후 세가는 본편 1, 2편의 리메이크인 '극 1', '극 2'를 차례로 내놓으며 준수한 반향을 얻었다. 그러나 7편의 발매는 '사골 IP'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게다가 펑크스타일 머리를 한 비호감 주인공, 액션을 버리고 JRPG 식 턴제 전투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마치 사골 곰탕에 푹 다대기처럼 호불호 요소였다. 그러나 게임 출시 후 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용과 같이 7'은 왜 명작인가

역설적으로 팬들이 우려하던 턴제 액션에 반전이 있었다. 턴제의 장점은 '파티'에 포함된 다양한 캐릭터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이 시스템은 주인공 '카스가 이치반'의 캐릭터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치반'은 전작의 '키류'처럼 완벽함이 아니다. '드래곤 퀘스트'의 열혈 플레이어로 '용사'에 대한 동경과 '동료'에 대한 무한 애정으로 무장한 칠푼이다. 그래서 동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턴제 시스템이 용서된다. 이 낭만 바보가 혼자서 험한 세상의 무게를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직업을 전직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전투에 활용하는 스타일은 게임 진행에 있어서 엄청난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며 볼륨을 부풀리는 효과도 가져왔다.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토리는 기가 막혔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영화 '대부' 이후 가장 멋진 누아르 물이다. 인물, 사건, 배경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스토리를 뽑아낸다.

진지함에 밸런스를 맞춘 코믹함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완숙기에 들어선 이 시리즈의 힘이다. 여기에 게임업계의 또 다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보정도 훌륭하다. 교훈을 주기 위해 오버하지 않고 일본의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다. 특히 일본 사회 내, 중국인과 한국인 등 이민자들을 묘사하는 시선에서는 글로벌 감각마저 엿보인다.



미니게임은 독립된 또 하나의 게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발전했다. 대표적으로 회사 경영은 스토리 진행을 있게 할 정도로 몰입감이 높다. 비주얼은 새로운 드래곤 엔진을 활용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 특히 배경이나 신체 묘사에 비해 얼굴 묘사가 섬세하다. 이것은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드라마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마치며...

세가는 '7편' 이후, 더 이상 '극 1', '극 2'와 같은 리메이크 작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방향이 전환된 이유는 '7편'의 흥행 이후 신작에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실은 게임 업계의 IP 활용을 '우려'로 보는 일부 여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새로운 IP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 그러나 적응된 문화의 힘은 수백 년을 관통하는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인 것이다. 세가의 '용과 같이'는 이 사실을 증명한다.

보고 계시는 '게임vs게임'은 자원기자단이 작성한 코너입니다. 자원기자단으로 신청하여 사우분들이 즐기는 게임을 소개해 보세요!

활동시 '최소 20만원' 이상의 혜택을 드립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원코너: 게임 vs 게임, 고전탐독, 나도 혼자 산다

QR코드로 자원기자단 신청하기





어떤 맛을 먹을까나~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 대박 기원 이벤트 ♥

2021년 3월 9일,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의 글로벌 론칭을 맞아 달콤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바로 "두근두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게임빌-컴투스 와 사내식당(Cooking)이 콜라보하여 준비한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벤트'!

구성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박! 식사 후 예상치 못한 맛있는 디저트를 선물 받은 사우들의 소화행과 동시에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의 글로벌 론칭을 다 함께 축하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트렌디한 사우들과 함께하는 ★스타그램 이벤트

동시에 ★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됐다. 아이스크림 인증샷과 지정된 해시태그를 올리는 이 이벤트엔, 기대 이상의 많은 사우들이 참여해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의 글로벌 론칭을 알렸다. 구성원들이 '아르카나 택틱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염담하며 담당자가 무척이나 뿌듯해했다고. 다음 게임 론칭도 기대해 주시라!

#소통Tok에 #댓글과 응원이 #조직문화 담당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글. 경보미 기자 / @bomi05



아르카나 택틱스

RE:VOLVERS



내 손 안의 전장, 밀리터리 모형의 세계

1 모형의 출발 - 조립하기

밀리터리 모형은 조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부품의 분실에 주의하고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설명서대로 조립해주면 된다. 그 후 사포와 아트나이프를 사용해 면을 잘 정리해주면서 진행한다.



★ 조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들. 모형 전용 니퍼, 미술용 아트 나이프, 먼 정리를 위한 사포(주로 800~600), 플라스틱용 무수지 접착제



★ 드물게 핸드드릴과 튜브형 페티(일종의 검토), 황동봉 및 순간접착제 등이 필요할 때도 있다.



★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이다. 설명서에 맞춰 차근차근 조립해보자.



★ 조립이 완성된 전차 모형

2 색칠을 위한 준비 - 서페이서

조립이 완성되면 도색을 위해 서페이서라고 하는 희색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뿌려줘야 한다. 서페이서를 뿌리는 이유는 조립한 모형에 어디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면에 뒤들림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런 부분들을 사포질하면 서페이서의 입자가 면을 고루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 서페이서를 뿌려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후 진행할 도료의 원활한 착색을 위해서다. 이때 냄새가 심하니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뿌려주도록 하자. 흑 번거로운 경우 마무리 사포질은 패스하고, 서페이서 없이 실물 색깔에 맞는 칼라 스프레이로 전체를 칠해주고 시작해도 된다.



★ 서페이서, 전용 칼라 스프레이 및 무광 마감재



★ 서페이서를 뿌려준 상태. 조형이 확실하게 보이며 착색을 도와준다



★ 밀바탕이 될 컬러 스프레이를 그 후에 뿌려주기도 한다.

3 본격적인 색칠작업 - 도료

도색용 도료는 크게 락카 성분 도료와 에나멜 성분 도료, 아크릴 성분 도료가 있다. 이 도료들은 각각 락카시너, 페인트(에나멜)시너, 아크릴시너로 희석해야 한다. 이 중에 에나멜과 락카성 도료는 유독성 냄새 문제로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는 작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초심자에게는 아크릴 도료를 추천한다. 냄새도 약하고 물로 희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기자가 보유한 아크릴 도료들. 비슷해 보여도 색상이 다르다. 제작하는 모형에 맞춰 최소한의 색을 구매하다 보면 이렇게 모이게 된다.



★ 기자가 사용하는 모형용과 미술용 붓들. 0~1호의 세필은 빨리 닳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필요하다. 8호 이상의 큰 붓은 저렴한 미술용 붓을 사용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면봉과 이쑤시개, 스펀지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흑색 펜으로 라인을 마무리해주기도 한다.

4 아크릴 붓도색의 기본과정

① 넓은 붓으로 전체 색을 깔아준다. 이때 너무 묽으면 색이 안 쌓이고 너무 진하면 도료층이 생기므로 적당하게 섞어 균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타이어 및 위장무늬 등 색이 다른 부분도 이때 구분해준다.

② 모형의 기본색에 따라 갈색 또는 검은색을 물에 아주 묽게 타서 전체적으로 발라준다. 이때 몰드(홈이나 라인 등 디테일을 높여주는 부분)에 흑색이 잘 스며들게 해줘야 한다. 몰드는 나중에 따로 세필이나 펜 등을 이용해 추가로 정리해주기도 한다. 물이 뭉치는 곳은 면봉이나 휴지로 닦으며 자국이 남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높은 채도의 기본색이 실제 차량의 분위기에 걸맞게 차분해지고 사용감이 생겨 리얼해지게 되며 디테일이 살아난다.

③ 전조등과 후진등, 기관총, 전차수리도구 등의 세부적인 별색들을 칠해준다.

④ 디테일을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세필 붓으로 실제 차량의 도색의 까짐 또는 굵금 표현과, 리벳 아래로 녹이 흘러내린 표현 등을 해준다. 전시된 새 차량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이 단계부터는 진행하지 않는다.



★ 도색이 진행되는 과정

⑤ 마지막으로 실제 운용한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 흠먼지가 튀 표현을 해준다. 마른 흠의 경우 밝은색으로, 젖은 흠의 경우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때는 물을 섞지 않고 도로만 붓에 찍어 스치듯 바르는 드라이 브러싱이라는 기법을 쓰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칫솔로 묽게 탄 도로를 찍어 손가락이나 이쑤시개 등으로 튀겨 주며 발라주어 실제 튀 흔적을 표현해주기도 한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흠의 질감과 덩어리가 들어간 진흙 전문표현 도로를 파는데,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⑥ 마감재 뿌리기
기껏 칠한 도색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마감재를 뿌려준다. 밀리터리 모형의 경우 꼭 무광 마감재인지 확인하고 뿌려주자.



★ 짜잔, 하고 완성된 밀리터리 모형. (제품은 러시아의 T-80U전차)

▶ 무엇이든 물어보자 - 밀리터리 모형 Q&A

1 밀리터리 모형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플라스틱으로 된 도색이 필요한 조립식 군사 모형을 말합니다. 축소 스케일은 지상전력의 경우 1/35, 공중전력의 경우 1/72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외의 스케일도 있어 더 작거나 더 큰 모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종류로는 주로 전차와 자주포 등의 군용차량과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비행기를 비롯해 군인, 야포, 동물 등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제품들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1차대전 이후부터 밀리터리 모형으로 분류되며, 그 이전 시대의 것들은 일반 모형 카테고리 분류합니다.

2 처음 시작하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조립만 한다면 아카데미에서 나온 MCP 제품군이 있습니다. 리얼리티는 부족하지만, 색도 나눠져 있고 접착제가 별로 필요 없기도 합니다. 붓도색을 해보고 싶을 경우 가장 무난한 것은 1/35스케일 전차 종류입니다. 비행기류는 아무래도 에어브러시가 필요하기도 하고 캐노피(조종석 덮개) 마스킹 처리가 번거롭고, 차량은 하부 새시 도색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3 취미로 즐기려면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으로 필요한 조립도구와 붓 등이 3만 원~5만 원 정도입니다. 붓도색 기준으로 한 작품에 들어가는 서페이스와 도로 등 보통 2만 원~3만 원 가량이죠. 도로의 경우 한번 사두면 꽤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어브러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기값부터 해서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4 자료 참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모형의 박스사진을 참고하지만, 실제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곤 합니다. 도색이 까진 표현이나 흠의 표현도 실제 사진을 많이 참고하고, 같은 모델을 만든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5 가족이 뭐라고 하진 않나요?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의 경우 부모님이 냄새에 민감하여 스프레이는 꼭 밖에서 뿌리고 에어브러시의 경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때만 사용합니다. (스프레이랑 에어브러시는 산업용 마스크 필수) 나머지는 각자의 가족사정에 따라서... 화이팅!

6 어떻게 구매하나요?

종류는 별로 없지만, 대형마트나 문방구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동교동에 네이버하비, 신도림과 국제전자상가에 조이하비라는 오프라인 샵이 있습니다. 모형부터 기본도구까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검색하면 온라인에서도 기본 조립도구까지 구매도 가능합니다.

‘로스트아크’ 레이드 편

한때 ‘기록 온라인’으로 불리었던 ‘로스트아크’를 기억하는가? 오픈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게임을 시작하려면 대기열과 함께 갈매기 소리를 무한정 들어야 해서 만들어진 별명이다.

‘로스트아크’는 그 외에도 PC MMORPG로 불리기도 했는데, 기자 또한 지인들과 힘을 합쳐 여러번의 시도 끝에 레이드를 클리어한 희열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번 호에서는 레이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소개한다.

1 파티 조합 워로드, 바드, 딜러 2명(인파이터, 리퍼 등) 가장 준수한 레이드 파티 조합. 탱킹과 도발, 무력화까지 책임지는 워로드와 팀의 서포트를 책임지는 바드는 레이드의 귀족으로 불릴 정도로 귀한 몸이다. 간혹 레이드를 빨리 클리어하기 위해 극딜 조합으로 레이드를 갈 수 있으나 웬만한 컨트롤로는 쉽지 않다.

2 신호탄(배틀 아이템) 신호탄은 레이드의 기본 매너다. 보통 파티의 번호 순서대로 레이드가 시작되자마자 신호탄을 날리면, 맵에 가디언(레이드 보스)의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클리어 타임 단축에 큰 도움이 된다.

3 폭탄(배틀 아이템) 무력화나 부위파괴의 핵심이 되는 아이템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폭탄이 있는데 폭탄마다 무력화 수치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디언에 따라서 필요한 폭탄이 다르다.

4 기믹 가디언을 쓰러뜨리기 위해 수행하는 특정 행동. 크로마니움(거북이 가디언)의 등껍질을 폭탄으로 부수거나 증갑 라크라세나(전갈 가디언)의 꼬리를 잘라 공격력을 낮추거나 하는 행동을 말한다.

5 패턴 적의 공격을 말한다. 각각의 레이드마다 가디언의 패턴이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르다. 난도가 높은 레이드를 돌려면 초행 파티를 들어가서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하거나, 유튜브에서 공략 영상을 검색하여 사전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난도 높은 레이드공략(공개파티)를 들어가서 패턴을 모른다고 말하면, 워로드나 바드가 아닌 이상 쫓겨날 확률이 높다.

6 채널링 가디언이 기를 모으면서 다음 페이즈로 넘어가려는 패턴. 대개 빛나는 이펙트가 나오면서 가디언이 기를 모으는 듯한 모션을 취하는데, 채널링에 성공하면 가디언은 공격력이 강해지거나 특별한 버프를 얻는다. 이때 모든 파티원은 무력화가 있는 스킬, 폭탄 등을 때리 붓거나 하여 채널링을 막아야 한다. 간혹 채널링을 막지 못하면 전멸기에 준하는 피해를 입어 부활 횟수가 정해진 레이드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긴다.

TIP. 레이드 뉴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채널링 하는 가디언의 모션을 보고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것인데, 열심히 무력화 스킬을 때려 붓는 고인물에게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다.



15분에 완성하는 '봉골레 파스타' 레시피



봉골레 파스타가 15,000원이 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면 5,000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 손으로 해먹는 요리로 식비를 줄일 수 있다! 15분 만에 똑딱 완성해내는 봉골레 파스타! 그 레시피를 한번 정리해 봤다.

★ 재료 준비 ★

▶ **재료**: 파스타면, 바지락, 화이트 와인, 올리브오일, 페페론치노, 다진 마늘, 쪽파

★ 재료 설명 ★

파스타면: 포장지 뒤를 보면 '알덴테(씹는 맛이 날 정도로 살짝 덜 익은 상태)'가 몇 분인지 적혀 있다. 파스타 종류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 여기서는 프라이팬에서도 익히기에 적혀진 시간보다 1분 정도 전까지만 삶는다.

바지락: 1인분에 작은 건 9~11개, 큰 건 7~9개 정도 넣으면 된다. 해감을 하는 것이 좋다. (간혹 마트 사장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 하도록 하자)

화이트 와인: 너무 달달한 것만 아니면 상관없이 아무 종류나 가능하다.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한다. 간혹 쉽게 타서 가열 요리에 쓰면 안 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페페론치노: 1~2개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진 마늘: 일반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써도 상관없다. 취향이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않도록 하자

쪽파: 일반적으로 파슬리를 많이 쓰지만 구하기 쉬운 쪽파를 써도 무방하고 개인적으로 한국인 입맛에 더 잘 맞다고 생각한다.

★ 제작 과정 ★

1단계

면을 삶기 위해 물에 소금을 넣고 끓인다. 소금의 비율이 1%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적당히 넣고 맛을 봐서 살짝 짜다 싶으면 성공이다. 물이 끓는 동안 쪽파를 썰어 둔다. 다진 마늘이 아닌 편마늘을 쓸 거라면 마늘도 같이 편으로 썬다.



2단계

면을 삶는 동안 프라이팬을 가열시키고 열기가 올라오면 올리브오일을 뿌린다. 다진 마늘을 넣고, 페페론치노도 썰어서 넣어준다. 불이 강하면 마늘이 타버릴 수가 있으니 마늘을 넣기 전에 중불 정도로 줄인다.



3단계

마늘이 살짝 익으면 바지락을 넣고 섞어준 후, 화이트 와인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는다. 뚜껑을 덮지 않으면 조개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튀어 오를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덮어주길 바란다! 뚜껑을 덮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탕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개가 입을 여는 소리이다. 이때 뚜껑을 열고 면수를 조개 위에 뿌려준다.



4단계

조개가 입을 모두 벌리면 건져 둔다. 만약 집에서 홀로 먹으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껍질 속 내용물만 채겨 놓아도 된다. 자, 이제 면이 익었는지 확인한 뒤, 익었다면 프라이팬에 면을 옮긴다. 혹시 덜 익었다면 약불로 줄이고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긴다. 이후 면수를 조금 더 넣고 쪽파도 넣어준다.



5단계

이제 가장 중요한 '만테까레'를 할 시간이다. 물과 기름이 섞이는 마법 같은 조리 과정이다. TMI 하자면 이탈리아 요리 중 파스타와 리소토에서 사용하는 조리 기법! 이름에 비해 방법은 간단하지만 잘 성공하긴 힘든 만테까레를 소개하겠다.

불을 끄고 꺼내 뒀던 조개를 같이 넣고 파스타를 돌려가며 휘저어준다. 부침개 좀 뒤집어 봤다면 부침개 뒤집듯이 내용물을 하늘로 올렸다 내렸다를 해주면 된다. 실수로 기름이 밖으로 튀면 인덕션으로 요리를 해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6단계

집에서 혼자 먹는다면 그냥 프라이팬에 먹는다. 그릇에 담는 것보다 맛있고 설거지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접대한다면 그릇에 옮겨 담는다.

만약 집에 사용할 도구가 젓가락뿐이라면 이쁘게 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면을 먼저 옮겨 담고 위에 조개와 나머지를 최선을 다해 부어준다.

자, 그럼 이제 Buon appetito!



스위프트 포인트 트랙포인트 마우스

만능 펜그립 마우스로 손목 건강을 사수하자!

날이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하나씩 가벼워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노트북과 마우스, 충전기는 너무 무겁다. 하지만 노트북을 바꾸거나 사양 비교할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늘 스쳐 가지만 하는 통장 잔고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 얼마 없는 선택지 중에 기자는 마우스 바꾸기를 추천한다. 이번에 소개할 스위프트 포인트 마우스는 무게와 기능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는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첫인상

택배를 개봉하고 첫 만남에 든 생각은 '과연 편할까?'가 아니라 '예상보다 작는데 내 손에 맞을까?'였다.

일단 떨리는 마음으로 PC에 연결을 마치고 어떻게 이 마우스를 활용해야 할지 사용기를 찾다 보니 어색함은 잠시, 익숙해져 갈수록 꽤 괜찮은 마우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기자가 체험해 보고 솔직하게 작성한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보겠다.



가볍고 손목이 아프지 않은 마우스

이 마우스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게다. 작은 사이즈답게 24g의 가벼운 무게는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이어진다. 에어팟 케이스 정도의 크기로 어디든 쏙 들어가고 공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

또한 구매 시 같이 제공되는 전용 케이스에 넣어 다니면 안전하게 휴대가 가능하다. 강력한 휴대성에 더하여 인체 공학적 디자인은 연필을 잡는 듯한 사용감으로 더욱 손목의 부담을 덜어준다. 줄어든 손목의 부담은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의 걱정인 손목 건강에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마우스와는 잡는 방법이나 모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만능 프리젠테이션

이 마우스에는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프리젠테이션 기능이다. 보통 프리젠테이션과 마우스 기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마우스는 프리젠테이션 도중에 마우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약한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젠테이션 가지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또한 24g의 가벼운 무게는 더욱 사용자의 사용감을 높이고 몰입감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제스처

강력한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마우스를 살짝 기울이거나 특정 버튼과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바로가기와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 마치 트랙패드에서 제스처를 이용하는 느낌과 유사하지만, 제스처 슬롯이 트랙패드보다 더 많아서 훨씬 유용하다. 써보면 알겠지만, 제스처를 통한 더 빠른 기능 수행은 업무 효율 향상과 편리함을 경험하게 해준다.

아쉬운 점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다. 아무리 전자제품이 가벼워지고 작아질수록 비싸진다고 하지만 이 크기에 10만 원이 넘는 가격은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기기에 관심이 많고 불편한 점을 항상 개선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혹여나 현재 마우스가 자기 손에 적합하지 않거나 손목이 자주 아프다면 더욱 추천해본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처음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최초 사용 시에 느끼는 어색함이 있다. 기존 마우스와 잡는 법이 다르고, 연필이나 펜을 잡는 것 과도 묘하게 다른 이질감이 느껴진다. 물론 익숙해지면 더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스처 기능 사용 시 아주 살짝만 기울여도 동작이 가능한데, 초반에 수평을 맞추기 힘들어서인지 원치 않게 자주 제스처 모드로 빠지는 경우도 여럿 있어서 초반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솔직하게 남기는 후기

기자도 여러 업무와 게임에 치친 연약한 손목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마우스를 써보고 느낀 결과는 무척 만족스러웠다.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다는 베타컬 마우스도 써보았지만, 이 마우스가 더 가볍고 작은 동작으로 움직여서 무리가 덜 가는 느낌이 강했다. 반면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많이 불편했다. 주 용도가 업무용이지만 혹시 다양한 장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역시 버튼 배치도 게임을 하기엔 불편했고 조작도 어색해서 힘들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 기자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가볍고 손목이 편한 마우스를 찾는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줄 것이다. 가격대는 다소 높지만 일반적인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거의 반드시 필수로 사게 되는 손목 보호대나 병원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 마우스는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되어 줄 것이다.



게임빌-컴투스인들의 달콤한 인생

#랜선여행 #사이콘서트부터_남미까지 #어서와_몽골은_처음이지? #곧갈수있게될꺼야

지난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죽기 전에 꼭 한 번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 사진'이었습니다. 일상을 살짝 벗어나 스스로에게 선물 같은 휴식을 주는 여행. 쏟아지는 별과 광활한 자연 풍경, 깨끗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결들이 주는 벅찬 등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즐거운 여행의 맛, 오랜만에 느껴 보셨나요?

게임빌-컴투스인의 특별한 여행지와 에피소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남한솔 (RAON 스튜디오)

인생이 힘들다 느껴질 때 더 큰 고생길을 체험할 수 있는 몽골여행을 추천합니다! 낙타 타기 체험을 하면 낙타가 똥 싸는 모습도 바로 뒤에 서 직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명 장면이었어요.



김다은 (사업기획팀)

코로나 직전에 친구들과 다녀온 꿈이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더웠지만, 맑은 하늘과 청량한 바다가 아직도 그리워요. 돌고래 투어도 다녀왔는데, 딱 그날 날이 좋아서 돌고래도 볼 수 있어서 행운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이동현 (RED 스튜디오)

남미 파타고니아로 와이프와 함께 배낭여행했던 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네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지도와 가이드북만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도 대견하네요. 고생한 만큼 아름다웠고, 특히 빙하수가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어서 오기를!



문자연 (BI기획팀)

장기근속 휴가를 받아 혼자 부산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팀장님과 팀원은 바쁜데 저 혼자 여유롭게 바닷길 걷다가 커피 먹고 했던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다음 장기근속 휴가 땀 혼자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하지수 (HERO 스튜디오)

여름 콘서트하면 싸이 흥벅쇼!! 사람도 많고 날도 더웠지만 시원하게 소리 지르며 신나게 놀던 그때가 그리워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월의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참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아이 자랑, 게임 자랑, 만들기 자랑, 목표 달성 자랑 등 사우님들께 의미 있는 자랑들을 소개하고 인생의 활력소로 만들어 보아요! (당선자를 위한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QR CODE



기간: 2021년 4월 15일까지
 응모방법: 사진 및 설명을 이름/소속/연락처와 함께 QR코드 또는 메일(GCNEWS@gamevilcom2us.com)로 보내주세요.



PROJECT CARS



게임빌-컴투스 피플 엿보기

MY BIG DATA

인생에 '만약은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역사, 문화, 경제, 스포츠 등 인류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순간 과거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우리의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해 본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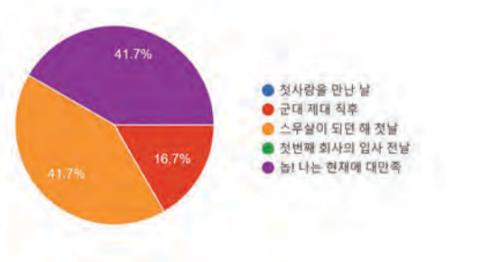
게임빌-컴투스 사우들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 할까요? 로또 1등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만약'을 주제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인생극장 '만약에 말이야'

★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시나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이 현재에 대만족하고 있다고 답해주셨고, 스무 살이 되던 해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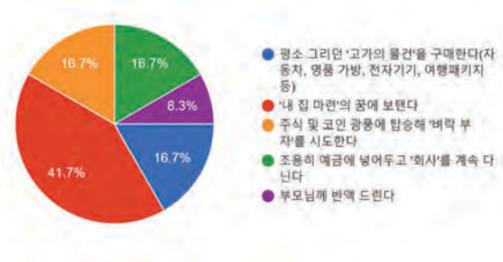
돌아가고 싶은 이유로는 '더 신나고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마셔도 다음날 아프지 않았어요!', '가장 건강하고 용감했던 시절이라서' 등이 있었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 만약에 '로또 1등'이 된다면?

여러분은 로또 1등이 되면 무얼 하고 싶은가요? 저는 우선 마음에 드는 차 한 대와 집을 살 것 같은데요. 물론... 작고 소중한 미니어처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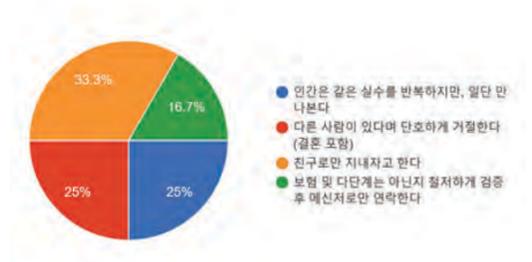
사우들의 생각도 대부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보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재테크에 투자해 '벼락부자'를 시도한다거나 평소 가지고 싶었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만한 금액까지는 아닌 게 현실이라, 예금에 넣어두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 만약에 '첫사랑'이 연락해 만나자고 한다면?

영화 <라디오 스타> 속 박중훈이 말했죠. 처음이라는 말보다 설레는 단어는 없다고. 첫ולם. 첫눈, 첫만남, 첫데이트... 그중에서 가장 떨리는 말은 아마 첫사랑이 아닐까요. 첫사랑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우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친구로만 지낸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서운 세상 조심해야 한다'며 다단계를 의심해 메신저로만 연락한다는 반응도 많았네요.

이 글을 보시면서 '모של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쁜 '첫사랑'을 만들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져 한가지의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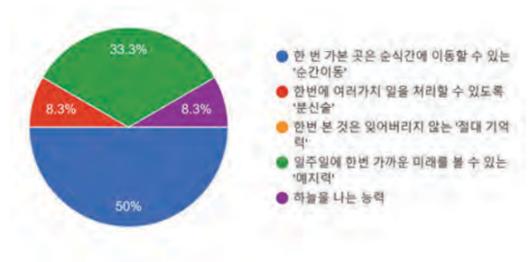
생존을 위해 필요한 3대 요소는 의·식·주 입니다. 그 외에도 불피울 도구나 구급약이 없다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될 수도 있죠. 게임빌-컴투스 사우들은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꼭 필요한 물건으로 식량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먹을게 가장 중요하다'거나 '배고픈 건 못 참는다'는 답변이 많았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한다'는 응답도 눈에 띄었습니다.



★ 만약에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능력이 좋을까?

혹시 독자분들은 어릴 때 친구들끼리 초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서로의 능력을 겨루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는 상상은 언제나 즐거운 법이죠.

사우들의 절반이 선택한 능력은 '순간이동' 입니다. 날이 춥거나 덥거나, 태풍이 오거나 함박눈이 오거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회사-집을 순식간에 오고 갈 수도 있고 마트도 속속하고 다녀갈 수 있어서 생활밀착형 능력인 것 같네요.



게임빌-컴투스의 사우들의 '빅 데이터' 어떠셨나요? 나와는 다른 대답에 조금은 흥미로우셨나요? 다음호에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니 아래 QR 코드를 통해 설문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그럼, 다음호에서 만나요~!

My Big Data 설문 참여하기



◆ My Big DATA 설문 응모자 당첨자 공개!
축하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발송됩니다.

★ 2587님, 1015님, 0518님, 0814님, 7489님 ★

* 이번 설문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핸드폰 번호만을 수집했습니다. 응모자는 핸드폰 뒷 네자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면게임왕

'복면게임왕'은 매월 새로운 '갓겜'을 선정하여 감동과 여운을 독자와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게임을 단계별로 추측해서 정답을 맞혀 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01 2D RPG 게임만 출시하는 바닐라웨어에서 발매한 게임입니다.
2013년 PS3, PS 비타로 발매되었으며, 2018년 PS4로도 리마스터 되었습니다.

02 2D 일러스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게임입니다.
수채화 느낌의 배경이나 캐릭터가 3D보다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표현됩니다.

03 과거 오락실에서 히트했던 '던전 앤 드래곤즈'를 계승한 작품입니다.
실력이 좋으면 원 코인으로 2시간가량 플레이가 가능했기에 학창 시절 가장 많이 플레이한 오락실 게임입니다.

04 파이터, 워저드, 아마존, 엘프, 드워프, 소서리스 총 6명의 용사 중 한 명을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캐릭터를 본인만의 이름과 캐릭터 및 무기 색깔 등을 커스터마이징 하여 개성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05 다른 유저와 매칭하여 던전이나 PvP 전투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던전 앤 드래곤즈' 성직자 플레이 시 힐 안 준다고 체어샷 맞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 : 2021년 4월 15일까지
메일 주소 : GCNEWS@gamevilcom2us.com(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3월호 정답 : 마비노기 / 3월호 당첨자 : 조은(1767), 한현(5543), 김*영(1219)

글. 양태진 기자 / ytj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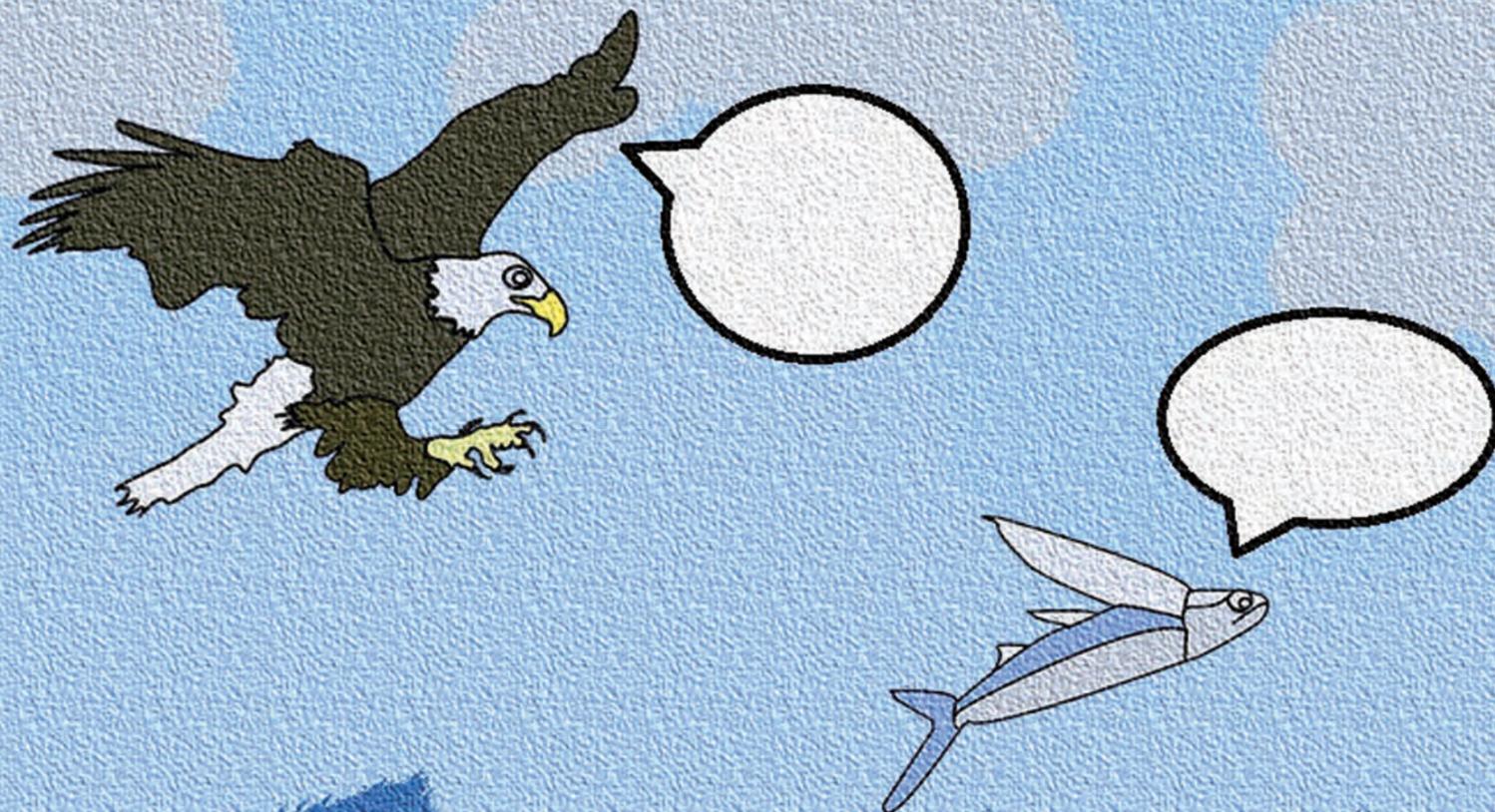


그림. 신수일 기자 / soonly@

🎁 3월호 당첨자 발표 이충구, 최진우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무한한 상상력을 기대합니다.
말풍선에 위트있는 멘트를 넣어
사진 촬영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WEWIT 삽화는 사우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멋진 솜씨를 뽐낼 금손 사우들께서는 언제든지
편집부에 문의 주세요~!
(이 코너는 임직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 2021년 4월 15일
메일 : gcnews@gamevilcom2us.com
회사, 소속,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세요

Congrats!

Welcome Welcome

글로벌 No. 1 모바일게임사를 위해 함께 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 입사를 축하합니다!



게임빌

게임제작본부 임혜련 사우

컴투스

가치경영본부 박풍정 과장, 개발운영센터 임학진 차석, 개발운영센터 이하연 사우,
개발운영센터 이유진 사우, 개발운영센터 김동호 책임, 개발운영센터 박종진 선임, 개발운영센터 정대혁 사우,
경영관리본부 한용주 대리, 경영관리본부 김찬민 사우, 경영관리본부 양찬호 과장,
마케팅&컨텐츠센터 김정인 대리, 마케팅&컨텐츠센터 김원호 대리, 마케팅&컨텐츠센터 박수민 사우
사업운영센터 그레타 사우, 사업전략총괄 강민성 과장, 제작2본부 이훈 선임,
제작3본부 김선라 사우, 제작3본부 박성준 선임, 제작5본부 윤수진 선임,
제작5본부 강원준 차석, 제작5본부 전세한 책임, 제작5본부 최은성 책임,
제작5본부 박경태 책임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인프라실 이한섭 사우, 플랫폼1실 국다연 사우



Gamevil Com2us USA

Scott Chavez



TWO IN MEDIA 167호 2021년 4월호



게임빌,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 글로벌 런칭

3월 9일, 게임빌이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를 전세계 시장에 선보였다.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는 티키타카 스튜디오(대표 유희상)가 2019년 국내 출시했던 '아르카나 택틱스'를 리뉴얼해 선보이는 글로벌 버전이다. 이 게임은 매 웨이브마다 랜덤으로 주어지는 영웅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상위 단계의 영웅으로 만들고, 각종 재화를 활용해 적을 물리치는 전략형 랜덤 디펜스 RPG다. 글로벌 버전에서는 유저간 실시간 '대결 모드(PvP)'와 '협동 모드'(PvE)를 새롭게 추가해 경쟁과 협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는 글로벌 퍼블리싱 강자인 게임빌의 운영 노하우를 적용해 일본, 북미 등 전세계 시장에 안착 중이다.



'컴투스프로야구2021', 게임 공식 모델로 최근 KBO 신인왕 4인 선정

한국 프로야구를 젊어질 신인왕 출신 선수들이 컴프야와 함께한다. 컴투스는 '컴프야2021'의 올해 게임 공식모델로 최근 KBO 신인왕 출신 선수 4인을 선정했다. 먼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신인왕을 거머쥔 이정후와 강백호는 각 소속팀의 차세대 프렌차이즈 스타로 불리우는 것은 물론 기량면에서도 뛰어난 임정환이 국가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신인 투수로서 두자리 승수를 쌓으며 소속팀 KT의 창단 첫 가을야구 진출을 이끈 소형준과, 안정적인 투구로 LG트윈스의 허리를 책임지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견인한 정우영 역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이번 시즌 '컴프야2021'의 공식 모델로 선정된 신인왕 출신 선수 4인방은 게임 타이틀 이미지 및 앱 아이콘 및 각종 홍보 영상을 활용한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게임빌 '빛의 계승자', 3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빛의 계승자(HEIR OF LIGHT)'가 출시 3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업데이트에서는 '시련의 탑'이 기존 100층에서 300층으로 확장되어 전투력 높은 보스들이 대거 등장했다. 기존보다 확대된 보상이 지급되며, 전투 종료 시마다 최고 기록을 갱신하도록 변경되어 탑에 대한 도전 욕구가 더 높아졌다. 또한 신규 5성 캐릭터(서번트) '플린'과 '이그니스'의 아바타도 출시되어 흥미로운 콘텐츠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3주년 업데이트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게임 접속 이벤트를 통한 다양한 보상이 지급되며 및 7일간 '올인원 패키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컴투스 'MLB9이닝스21', 메이저 업데이트와 함께 2021시즌 '플레이볼'

컴투스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글로벌 인기 모바일 야구게임 'MLB9이닝스21'이 메이저 업데이트와 함께 새 시즌에 돌입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2021시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및 선수들의 최신 이적 정보가 게임 내 그대로 반영됐으며, 리그 스케줄 역시 실제와 동일하게 적용돼 더욱 사실적인 메이저리그 야구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그래픽 퀄리티도 한층 높여 석양에 노을이 지는 연출 등 경기 시간대에 따라 변하는 구장의 환경 변화까지 구현해냈다. 실제 리그 스케줄과 함께 구단 운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새롭게 추가된 '리그 마스터 모드'는 기존 메인 PvE 콘텐츠 '리그 모드'의 상위 난이도 버전으로, 한층 높아진 난이도를 자랑하는 만큼 공략에 따른 더욱 큰 게임 보상이 주어진다. 또한, 도전 과제 달성 시 구단 전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아이템 '스텝 강화관'도 보상으로 지급해 유저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EPILOGUE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들이 기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우용 기자 8-11p Cover Story '동료에서 연인으로!' 김예지&정민주 부부

저 역시도 이전 회사에서 만난 연인과 사내커플을 거쳐 지금은 부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예전 추억도 다시금 떠올리 선물 같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아직 솔로이신 사우분들도 소중한 누군가가 꼭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누군가 마음에 두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보세요. 파이팅!!



정다영 기자 12-13p Game Focus '2024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시즌 개막 업데이트

사보 기사를 작성하면서 많은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미 기자 16-17p Special '개검자 월드탐험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 30p '하르카나 텍틱스: 리볼버스' 대학 기원 이벤트

'하르카나 텍틱스: 리볼버스' 론칭 이벤트와 '개검자 월드탐험' 프로그램을 사보에 소개할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구성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박민지 기자 18-19p Game Focus '컴프야2024' 더욱 다채로워진 새 시즌 살펴보기

매일 보는 사보에 많은 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처음 써봤는데 어렵지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형원 기자 22-23p MKT Story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서머너즈 워' & '사쿠라자카 46'

처음에는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에 관련된 것이라 무척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서 한국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의 시스템 구조가 확연히 다른 점을 알아가면서 재미를 느꼈고, 이것을 양국의 게임 시장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효정 기자 24-25p Special '액시던리스트의 삶' 2(E)편

사보와 함께했던 시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독자 여러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기우성 기자 32-34p 퇴근후에 '색상 위의 찬쟁, 밀리터리 모험의 세계'

준비되지 않은 와중에 갑자기 맡게 된 기자 활동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취미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두시는 분이 계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밌게 읽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윤선하 기자 35p 게임백과사전 '트스트아크' 레이드 힌

이번 기회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옛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뜻깊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욱진 기자 36-37p 맛채상 '15분에 완성하는 '봉골레 파스타' 레시피

사보를 진행하면서 봉골레 파스타를 6번 정도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장인이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원 기자 38-39p Monthly Item '소프트 포인트 트랙포인트 마우스

흥미로운 아이템을 선정해 소개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선영 기자 40-41p Special '교포가 전해주는 '브라질' 맛보기

브라질 교포로서 사보 기자 활동을 통해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브라질 문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 주세요~!



양태진 기자 47p 복면쟁왕

사보 기자로 참여하면서 예전에 어린 시절 친구들과 오락실에서 놀던 추억도 생각나고, 오랜만에 집에서 와이프와 같이 게임도 하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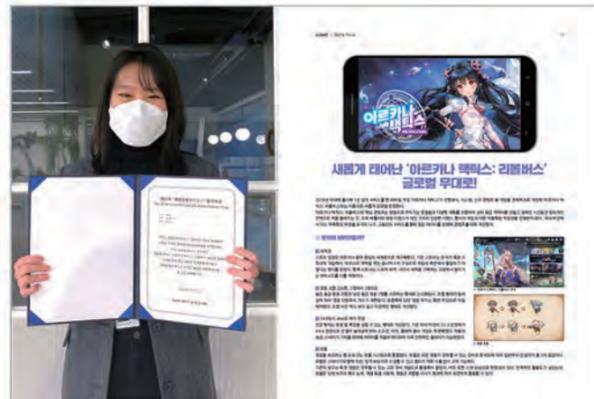
신수일 기자 49p WE WIT

처음에는 어떡하지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막상 참여하고 나니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Pulitzer Prize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임직원이 기자단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집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한 달 간 열심히 취재하고 즐겁게 노력해주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장 애써주시고 의미 있는 기사를 작성해 주신 기자 두 분을 선정해 풀리처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2021년 3월호 풀리처상 수상자들을 공개합니다.



양소영 기자

사보기자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신선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사보팀과 사업팀에서 도와 주신 덕분에 영광스러운 풀리처상까지 받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는 기자의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게임이었지만, 플레이를 할수록, 운과 랜덤성을 강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임이란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덕분에 기억력이 향상된 부분이 들어요.) 그 때문인지 기사를 쓰는 부담감이 줄고, 생각보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일반 랜덤 디펜스 장르와 다르게 색다른 매력을 가진 게임이라 좀더 많은 분들이 알고, 꼭 한 번 플레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우분들도 사보기자단에 참가해 보셔서 즐거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어렵지 않고,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니다. 그럼 기사를 읽어 주신 독자분들과 기사를 쓰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원식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사우분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인테리어를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최근 독립을 하게되어서, 조그마한 미니어처로만 만들다가 처음으로 방을 인테리어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조그마한 사이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들었지만, 현실판 집 만들기를 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사우 여러분들도 'DIY 미니어처 집만들기'를 해보고 외출이 불가능한 이 시국 잠시나마 집에서 힐링하면서 미래의 집을 그려보시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사우 여러분 모두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 'GC 상식 퀴즈'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잘 읽어보고 계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퀴즈를 풀고 QR코드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https://forms.gle/HzQe3ut2yjFtHo8K8>
 기간: 2021년 4월 15일까지



- 시즌 개막과 함께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 '겜프야2021'의 신규 콘텐츠가 아닌 것은?
 ① 실시간 대전 ② 해피 워크엔드 ③ 갤럭시컵
- 새롭게 출시하는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은 몇 대 몇 대전을 펼치는 게임일까요?
 ① 5:5 대전 ② 8:8 대전 ③ 10:10 대전
- 신규 입사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게컴지 월드탐험'의 퀘스트가 아닌 것은?
 ① 회의실 예약하기 ② 사보 독자코너 참여하기 ③ 로비에서 춤추기
-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 론칭 기념 이벤트에 나눠준 아이스크림 브랜드 이름은?
 ① 빙그레 ② 롯데삼강 ③ 배스킨라빈스

정답자 공개!

3월호 정답 : ① 결투장 ② 대한제본 ③ 구명보트 ④ 27.7세
 3월호 당첨자 : 이*현(4543), 김*준(8788), 양*민(7212)



PERFECT INNING 2021



MLB PLAYERS

GAMEVIL

GONG GAMES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 2017-2021 GAMEVIL COM2US USA, INC. GAMEVIL AND THE GAMEVIL LOGO ARE TRADEMARKS OF GAMEVIL, INC. GONGGAMES AND GONGGAMES LOGO ARE TRADEMARKS OF GONGGAMES CORP.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AND MAJOR LEAGUE ALUMNI MARKETING, INC.